

고민 많은 다케시마 문제

1

다케시마와 그 주위(12해리)에 갈 수 없게 되었다 !

※1해리 = 185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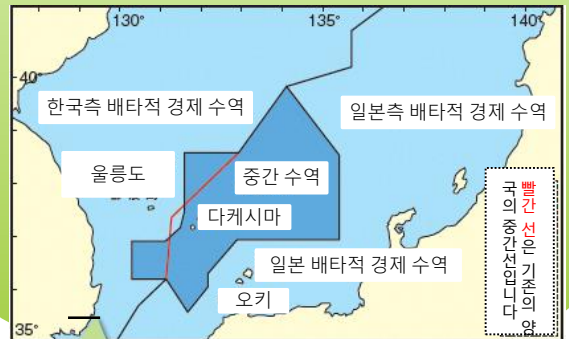
한국은 해양경찰을 주둔시키고, 등대, 숙소, 부두 등을 아무 연락 없이 건설하면서, 선박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한국인 관광객 상륙을 허가하는 반면, 일본인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어업을 못한다 !

다케시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는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한 양쪽이 어업을 할 수 있게 '중간 수역'을 규정했는데, 서로 법규가 다르고, 실제로는 일본쪽 어선은 물고기를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 자원이란?

바닷속 및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산물(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네요.

3

바다자원 조사를 못하는 이유 !



2006년, 일본 해양경찰청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려 갔으나, 한국은 경비선을 출동시키면서 방해를 시도했으니, 결국은 조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방적으로 '종합해양 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바다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다케시마가 가진 영토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